



Nam June Paik Ar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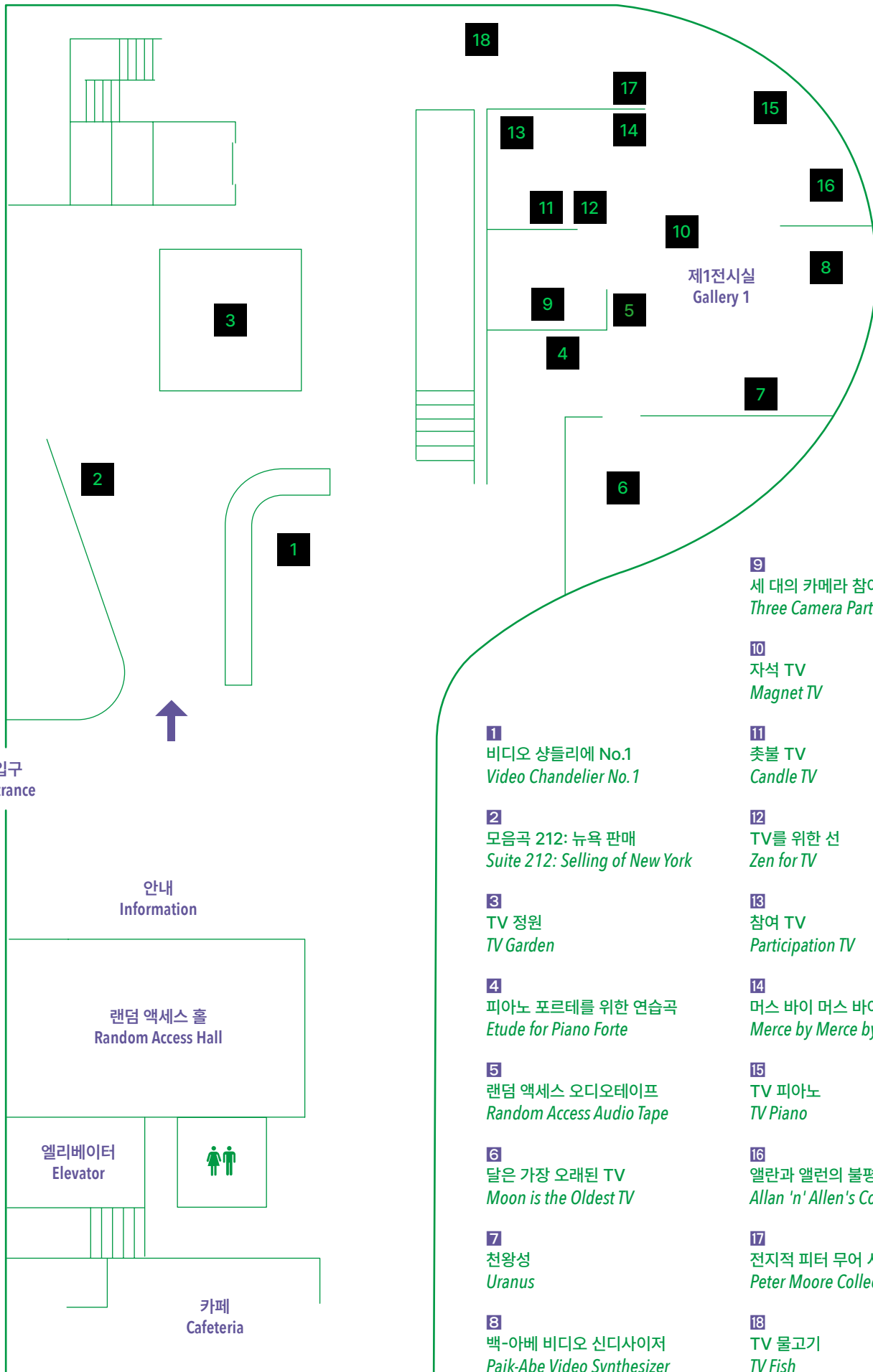
백남준아트센터

2025. 4. 10. – 2026. 2. 22.



전지적 백남준 시점
PLAY IT AGAIN, PAIK





“여기 열두 개의 달이 있죠?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시간을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백남준, WNET 방송국, 〈비디오 갤러리 III〉 인터뷰, 1976

백남준의 2025년 개인전 《전지적 백남준 시점》은 백남준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시간을 다루는 전시다. 전시의 중심에는 백남준의 지난 인터뷰 영상이 있다. 친절하게, 때로는 재치 있게, 백남준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시대적으로 낯선 장르였던 비디오 아트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넸다. 비디오를 그림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하고, 묵묵히 전자기술을 시연하기도 했다. 백남준은 비디오가 다른 예술과 달리 새로운 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점에 주목하며 시간에 관한 이야기와 글을 이어 나갔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다양하다. 쏜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도 있지만 단 몇 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때도 있다. 백남준은 이것을 두고 ‘라이브’ 삶에서는 인풋 타임과 아웃풋 타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비디오는 이러한 시간의 속성을 경험하기 좋은 재료다. 1964년에 백남준이 처음 제작한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밤하늘의 달을 촬영하여 재생한 비디오가 아니다. 흑백 텔레비전에 전자석을 부착하여 전자빔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으로 달의 형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달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내용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일종의 추상적 시간을 경험할 뿐이다.

음악과 텔레비전에서 출발한 이 전시는 각자의 시간 앞에 오롯이 놓여 있다. 몽타주처럼 시공간을 넘나들며 전시를 감상할 수도 있지만, 각 작품에서 다르게 흐르는 시간을 비교하며 시간의 다채로운 방향성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절대적인 시간과 상대적인 시간,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시간, 한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과 여러 방향으로 흐르는 시간, 비디오테이프의 빨리 감기와 되감기, 플러스 시간(기억)과 마이너스 시간(망각)이 흐르고 있다.

I see twelve moons here. Time you can't see.
I want to make time visible and time you can grasp.

Nam June Paik, interview excerpt from WNET Television Station, *Video Gallery III*, 1976

The 2025 solo exhibition, *Play It Again, Paik*, explores time as seen, heard, and experienced by Nam June Paik. At the heart of the exhibition are recordings of his past interviews. In a warm and often humorous manner, Paik explains video art, a concept that remained unfamiliar throughout the 1960s and 1970s. He likens video to painting and calmly demonstrates electronic technology. Above all, Paik continually discusses and writes about time, emphasizing that video, unlike other art forms, allows for a new experience of time.

Our experience of time varies. Sometimes it flies by like a flash, while other times, seconds can feel like years. Nam June Paik expressed this by stating that in “live” life, the relationship of input-time and output-time is much more complex. Video, in particular, is a medium well-suited for exploring these temporal properties. *Moon is the Oldest TV* is not a video of the moon in the night sky. Instead, a black-and-white television set is modified with electromagnets to temporarily disrupt the flow of electron beams, forming the shape of a moon. The video does not tell a story about the moon; in fact, it delivers no narrative at all. Viewers are left to experience a kind of abstract time.

This exhibition, which emerged from music and television, stands before each viewer's time. Like a montage, it allows viewers to skip through time and space, yet it also invites them to experience different directions of time by comparing the varying temporal flows within each work. Here, absolute time and relative time, abstract time without narratives, linear and multidirectional time, fast-forwarded and rewound videotape time, plus time (memory) and minus time (forgetting) all continue to pass by.

백남준, <비디오 샹들리에 No.1>, 1989, 가변크기,
텔레스타 흑백 CRT TV 모니터 38대, 크리스마스 전구,
영상선, 분배기,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Nam June Paik, *Video Chandelier No.1*, 1989, dimensions
variable, 38 Telestar black & white CRT TV sets, Christmas lights,
wires, video distributor, 1-channel video, color, silent, LD

‘샹들리에’의 어원은 촛대를 상징하는 라틴어 ‘칸델라브룸’에서 유래한다. 샹들리에에는 보통 빛을 내는 초를 여러 개 세우고 주변으로 크리스털 같은 반짝이는 장식을 달아서 아름답게 빛을 퍼뜨린다. 백남준은 흑백 텔레비전을 촛불 삼아 빛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늘어트린 전선과 작은 전구로 텔레비전을 장식하여 첫 샹들리에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 기술이 우리의 시공간을 아름답게 빛내는 시대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백남준은 당시 최신 기술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비디오를 만들고, 혁신적인 휴대용 무선 텔레비전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했다. 과거의 도구인 촛불부터 무선 기기에 이르는 현대 문명까지 아우르는 이 작품은 시간을 넘나드는 백남준의 기술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The word “chandelier” originates from the Latin word candelabrum, which means candlestick. Typically, a chandelier holds several candles that emit light and is adorned with sparkling decorations such as crystals to beautifully spread light around. Nam June Paik’s first chandelier used a black-and-white television as a candle to create images and light, and decorated the television with dangling wires and small bulbs, presenting a beautiful display of our time and space transformed by media technology. Paik created the video with computer graphics, the latest technology at the time, and chose the groundbreaking wireless portable television to create his work. By incorporating technologies from the past, such as candlelight, and the present, such a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the work demonstrates Paik’s technological imagination across time.



Nam June Paik, *Suite 212: Selling of New York*, 1975 (1977),
8:10, color, sound

백남준, *〈모음곡 212: 뉴욕 판매〉*, 1975(1977), 8:10,
컬러, 유성

〈뉴욕 판매〉는 뉴욕의 WNET 방송국에서 제작한 비디오 프로그램 〈모음곡 212〉의 대표작이다. 총 30여 편의 짧은 비디오로 구성되어 매일 방송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비디오 신디사이저를 이용한 전자 콜라주의 빠른 편집과 유쾌한 사운드가 더해져, 뮤직 비디오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국제적이고 거대한 도시인 뉴욕의 다문화성을 다채롭게 조망한다. 뉴욕의 지역 전화번호인 212를 의미하는 이 시리즈는 백남준의 개인적인 비디오 스케치로 소개되었으며, 이 시리즈 중 가장 유명한 〈뉴욕 판매〉는 방송과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장악한 뉴욕의 모습을 그려냈다.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방송의 힘과 이를 그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첩되어 재치 있게 표현된다.

Selling New York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pieces from *Suite 212*, a video show produced by New York's WNET television station. The program, which comprised over 30 short video segments, aired as the final broadcast of the day. The rapid editing of electronic collage using a video synthesizer, combined with lively sounds, gives the work a music-video-like feeling. These pieces, which reflect the multiculturalism of New York, a cosmopolitan and vast city, offer a diverse perspective. Named after New York's area code, 212, the series featured personal video sketches by Nam June Paik. The most famous of these, *Selling New York*, depicted the city's dominant broadcast and television networks. The work cleverly juxtaposes the power of mass media, both commercial and political, with the passive consumption of television in everyday life.



백남준, <TV 정원>, 1974(2002), 가변크기, CRT TV 모니터, LCD TV 모니터, 살아 있는 식물, 앰프, 비디오 분배기, 스피커, 1-채널 비디오, <글로벌 그루브>, 컬러, 유성

Nam June Paik, *TV Garden*, 1974 (2002), dimensions variable, CRT TV sets, LCD TV sets, live plants, amplifiers, video distributor, speakers, 1-channel video, *Global Groove*, color, sound

<TV 정원>은 나무와 풀이 어우러진 정원 사이로 TV 모니터가 설치된 작품이다. 화면에 나오는 것은 <글로벌 그루브>라는 비디오 작품으로 다양한 문화의 음악과 춤이 흥겹게 이어진다. 백남준은 자연과 비디오의 연관성을 고찰한 글을 통해, 비디오로 작업하기 전에는 계절마다 고유한 색이 있는 것처럼 색이 시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연에서 봄은 옅은 초록으로 시작하여 꽃이 피는 5월을 지나 여름이 되면 푸른빛이 되며, 가을은 노란빛에서 붉은빛으로 물든다. 텔레비전도 색도를 지닌 전파의 주기에 따라 파랑-노랑-주황-진홍색으로 바뀐다. 이를 두고 백남준은 “자연의 모습처럼 매우 빠른 시간의 연속이 TV에 컬러를 만들어 낸다”고 표현하며 텔레비전이 전자적 색을 만들어내는 기술임을 강조했다. 백남준에게 텔레비전을 보는 행위는 시간의 차원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TV Garden is an installation where television monitors are placed amidst a garden of various trees and grasses. The screens display *Global Groove*, which features music and dance from various cultures excitedly. In his writing reflecting on the connection between nature and video, Nam June Paik said that before working with video, he hadn't noticed that color can act as a time of day, just as each season has its own color. In nature, spring begins with pale green, transitions through the blooming colors of May, deepens into summer's blues, and shifts from yellow to red in autumn. Television also changes from blue to yellow to orange to crimson according to the chromaticity cycle of radio waves. "As in nature, in television the succession is very, very fast time makes color," Paik said, emphasizing that television is a technology that creates electronic color. For Paik, the act of watching television was equivalent to entering the dimension of time.



비디오
Video

-일본 NHK 방송국, <일요미술관>,
1984

-NHK 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Sunday Museum*, 1984

Klaus Barisch

Nam June Paik, *Etude for Piano Forte*, Concert on October 6, 1960, Atelier Mary Bauermeister, Cologne

- 1) Paik in the audience, in action David Tudor, Cornelius Cardew, Ben Patterson, John Cage and Leo von Knobelsdorff, 27×27cm
- 2) *Are you gentleman?*, 32×23cm
- 3) Paik attacks John Cage with scissors and cuts his shirt and tie, 27×27cm
- 4) Nam June Paik, John Cage with cut tie and David Tudor, 27×27cm
- 5) Paik lying behind the overturned piano, 27×27cm

1960, black and white photograph printed on Baryta paper

클라우스 바리시

백남준,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 1960년 10월 6일 콘서트, 아틀리에 마리 바우어마이스터, 쾰른

- 1) 청중 속의 백남준, 공연 중인 데이비드 튜더, 코넬리우스 카듀, 벤 패터슨, 존 케이지, 레오 폰 노벨스도프, 27×27cm
- 2) “당신은 신사입니까?”, 32×23cm
- 3) 가위를 가지고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는 백남준, 27×27cm
- 4) 백남준, 넥타이가 잘린 존 케이지, 데이비드 튜더, 27×27cm
- 5) 넘어진 피아노 뒤에 누워 있는 백남준, 27×27cm

1960, 바리타지에 흑백 사진

클라우스 바리시가 찍은 다섯 장의 사진은 1960년 열렸던 백남준의 전설적인 콘서트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연습곡〉의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 이날 백남준은 쇼팽을 연주하다가 피아노를 부수고 객석에 있는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고 달려 나가 버렸다. 같은 제목으로 남아 있는 백남준의 음원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과 〈환희의 송가〉,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개 짖는 소리, 흐느끼는 소리 등이 섞인 녹음테이프로 만든 음악이다. 이렇듯 백남준의 초기 작곡은 액션을 동반하는 퍼포먼스적 요소와 다양한 소리가 혼재되어 있었다. 백남준의 음악은 폭력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유명했으나, 정작 백남준은 자신이 의도한 것은 폭력이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낼 충격, 극한에 이른 전자적 충동과 놀라움이라고 말했다. 시공간 안에서 다양한 감각을 재배치 하려는 백남준의 실험은 다차원의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Five photographs taken by Klaus Barisch vividly capture the legendary moment of Nam June Paik's 1960 performance of *Etude for Piano Forte*. During the performance, while playing Chopin, Paik smashed the piano, cut John Cage's necktie, and stormed out of the audience. Paik's recording of the same title, which still survives, is a mix of music from Beethoven's *The Fate Symphony* and *Ode to Joy*, Stravinsky's *Petrushka*, the sounds of barking dogs, and sobbing. As such, Paik's early compositions were action-oriented, performative, and blended with a variety of sounds. Although Paik's performance was known for being violent and radical, he stated that his intention was not violence but rather to create a shock that would lead to catharsis, an electronic impulse that reached extremes and surprise. Paik's experimentation with rearranging the senses in space and time takes viewers into a multidimensional experience of time.

비디오
Video

-WNET 방송국, 〈백남준: 텔레비전을 위한 편집〉, 1975

-WNET Television Station, *Nam June Paik: Edited for Television*, 1975

백남준, **《랜덤 액세스 오디오테이프》**, 1963(1975), 나무판
71×130cm, 휴대용 카세트 재생기 14×25×8cm, 나무판,
플라스틱 호일, 오디오테이프 조각, 휴대용 카세트 재생기,
마그네틱 테이프 헤드

Nam June Paik, **Random Access Audio Tape**, 1963 (1975),
chipboard 71×130cm, portable cassette player 14×25×8cm,
chipboard, plastic foil, audio tape strips, portable cassette player,
magnetic tape head

백남준은 1963년 열린 첫 개인전에서 녹음테이프를
풀어 벽면에 붙이고, 관람객이 재생 장치에서 분리한
금속 헤드로 벽면의 테이프를 직접 훑는 방법으로 녹음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랜덤 액세스》**를 선보였다. 이때 '임의
접속'이란 일정한 시간 내에 목록의 모든 항목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며 사용자는 저장된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든지 즉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랜덤 액세스
오디오 테이프》**는 녹음테이프를 나무 판에 붙이고 재생
가능한 금속 헤드가 연결된 휴대용 카세트 재생기를
배치해 둔 작품이다. 첫 번째 작품과 마찬가지로 **《랜덤
액세스 오디오테이프》** 역시 관람객이 테이프를 긁어
'임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관람객이 테이프를 긁는
방향과 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음악이 흘러나온다.
백남준은 **《랜덤 액세스》**를 통해 마그네틱테이프가 가진
물질성과 그 선형적 구조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했다. 또한 '임의 접속' 개념에서 시작한
우연성과 시간에 대한 실험을 비디오로 확장했다.

In his first solo exhibition in 1963, Nam June Paik presented *Random Access*, a work in which he unwound a recording tape, mounted it on the wall, and allowed viewers to listen to the recorded sound by running the tape directly across the wall with a metal head that was removed from the playback device. The term "random access" refers to the ability to access all tracks in a list within a set period, enabling users to directly and immediately access stored data, regardless of its location. *Random Access Audio Tape* is a portable cassette player with a playable metal head attached to a wooden board. Like the original work, the portable *Random Access Audio Tape* allows viewers to scratch the tape to hear "random" sounds. The music that played varies depending on the direction and speed at which the viewers scratched the tape. Through "random access", he experimented with the materiality of magnetic tape and the possibility of freely altering its linear structure. Paik extended this conceptual experimentation with coincidence and time to video.



Nam June Paik, *Moon is the Oldest TV*, 1965 (2000), dimensions variable, 13 CRT TV sets, 12-channel video, color, silent, LD; *E-Moon*, 1-channel video, color, sound, DVD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1965(2000), 가변크기, CRT TV 모니터 13대, 12-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E-Moon〉*, 1-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DVD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12개의 달에 〈E-Moon〉(1999)이라는 영상이 추가되어 13대의 모니터로 구성된 것입니다.

Moon is the Oldest TV consists of 13 monitors, incorporating a video titled *E-Moon*(1999) into 12 computer-generated moons.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13개의 모니터에 초승달부터 보름달까지 변화하는 달의 모습을 담아놓은 작품이다. 1965년 이 작품을 처음 선보였을 당시 백남준은 음극선관과 텔레비전 내부 구조를 변형시켜 추상적인 영상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달은 가장 오래된 TV〉 역시 음극선관 끝의 편향 장치를 움직여 전자기적 흐름을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하얀 달이 화면에 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냈다. 백남준은 비디오 예술가들이 추상적인 시간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부재가 존재하는 무위의 시간을 가리킨다고 표현한 바 있다. 달의 주기는 순환의 리듬을 담고 있는 자연적 시간이지만, 백남준의 '달'은 실재하는 달을 찍어서 재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달을 촬영하여 보여준다면 그것은 정지한 순간이 아니라 변화하는 달과 지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백남준의 방식만이 얼어붙은 시간, 즉 영원히 멈춰진 시간을 시각화 할 수 있는 것이다.

Moon is the Oldest TV consists of 13 monitors displaying various lunar phases, from crescent to full moon. When Nam June Paik first exhibited this work in 1965, he was experimenting with modifying cathode ray tubes and television internals to create abstract imagery. *Moon is the Oldest TV* also uses a deflector at the end of a cathode ray tube to alter the electromagnetic flow, creating the effect of a pale moon floating on the screen. Paik once explained that video artists had discovered abstract time, which he defined as time without content. While the lunar cycle represents natural time, imbued with its rhythmic patterns, Paik's "Moon" is not a playback of the real moon. If the moon were filmed and shown, it would capture not a still moment, but the changing moon and Earth's movement. Only through Paik's unique approach can a static moon, a frozen moment in time, an eternity, be shown.

비디오 Video

- Video USA, 〈달은 가장 오래된 TV〉, 연도미상
- WNET 방송국, 〈비디오 갤러리 III〉, 1976
- Video USA, *Moon is the Oldest TV*, undated
- WNET Television Station, *Video Gallery III*, 1976

백남준, <천왕성>, 1991, 243.8×243.8×81.2cm,
원형 철제빔, 모니터 24대, 2-채널 비디오, 리움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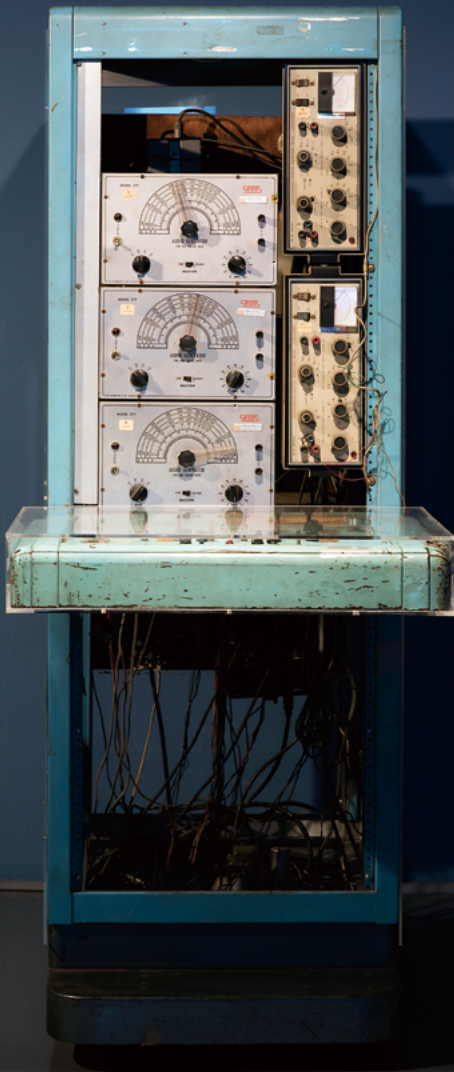
Nam June Paik, *Uranus*, 1991, 243.8×243.8×81.2cm, round
steel beam, 24 CRT TV sets, 2-channel video, Leeum Collection

백남준의 예술적 상상력이 우주로 확장된 작품 <천왕성>은 우주 오페라 3부작과 행성 연작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낸다. 백남준은 위성 생방송으로 뉴욕과 파리를 연결하며 전지구적 소통과 상상력을 극대화했다. 또한 <해와 달>, <금성>, <화성>, <해왕성> 등으로 이루어진 행성 연작을 통해 우주에 대한 비전을 펼쳐 보였다. 태양계의 일곱 번째 행성인 천왕성은 대기 중 메탄 성분으로 인해 청록빛을 띤 채 희미한 얼음 고리를 품고 있다. 백남준의 <천왕성>은 화려한 네온과 24개의 모니터를 통해 다채로운 영상을 보여준다. 24개의 화면을 넘나드는 찬란한 영상들은 순간성과 영원성이 교차되며 우주의 시적 초상을 그려낸다.

Uranus is an expression of Nam June Paik's cosmic imagination, encapsulated within his trilogy of satellite operas and planetary series. Paik amplified global communication and imagination by connecting New York and Paris through a satellite live broadcast. He expanded his vision of the universe through the planetary series, which includes works such as *Sun and Moon*, *Venus*, *Mars*, and *Neptune*. Uranus, the seventh planet in the solar system, appears turquoise due to methane in its atmosphere and features hazy ice rings. In *Uranus*, Paik combines colorful neon lights with 24 monitors displaying various images. The radiant visuals flickering across the 24 screens create a poetic portrait of the universe, bridging the fleeting and the eternal.

Nam June Paik, Shuya Abe, *Paik-Abe Video Synthesizer*, 1969 (1972), 168×64×114cm, 2 CRT TV sets, 2 enamel coils, 2 CCTV cameras, 1 amplifier, 5 audio generators, control board

백남준, 아베 슈야,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 1969(1972), 168×64×114cm, CRT TV 모니터 2대, 에나멜 코일 2개, 폐쇄회로 카메라 2대, 앰프 1대, 신호 발생기 5대, 컨트롤 보드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백남준과 일본의 공학자 아베 슈야가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 합성기이다. 비디오 합성기는 외부의 영상 소스를 받아 실시간으로 색과 형태를 조합하고 변형할 수 있는 영상 편집 기계이다. 백남준은 정보 전달의 통로로 여겨진 텔레비전에서 벗어나 누구나 피아노를 연주하듯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자 했으며, 관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열린 전자 환경을 구상했다. 1969년 아베와의 거듭된 연구 끝에 〈백-아베 비디오 신디사이저〉가 완성되었고, 〈비디오 코뮌〉 등 다양한 비디오 편집을 위해 활용되었다.

Paik-Abe Video Synthesizer is a video synthesizer co-created by Nam June Paik and Japanese engineer Shuya Abe. A video synthesizer is a video editing machine that accepts video from cameras and external sources and can synthesize and transform colors and shapes in real time. Moving away from television as a conduit for information, Paik wanted to create a machine that would allow anyone to edit video as if they were playing a piano and envisioned an open electronic environment that would invite audience participation. The *Paik-Abe Video Synthesizer* was created in 1969 after repeated research with Abe and was later used to edit videos such as *Video Commune*.

비디오 Video

- 독일 ARD 텔레비전과 브레멘 미술관의 회고전에 맞추어 인터뷰 하는 백남준, 1999
- 백남준, 〈마이 믹스 81〉, 1981
- 장 폴 파르지에, 〈남준, 한 번 더〉, 1990
- WNET 방송국, 〈백남준: 텔레비전을 위한 편집〉, 1975
- WDR 방송국, 〈아방가르드는 당당하다〉, 1977
- Nam June Paik's Interview on the Occasion of His Retrospective with ARD Television and the Kunsthalle Bremen, Germany, 1999
- Nam June Paik, *My Mix 81*, 1981
- Jean-Paul Fargier, *Play It Again, Nam*, 1990
- WNET Television Station, *Nam June Paik: Edited for Television*, 1975
- WDR Television Station, *Das gute Gewissen der Avantgarde*, 1977

백남준, **〈세 대의 카메라 참여〉**, 1969(2001), 가변크기,
비디오카메라 3대, 비디오 분배 증폭기, 비디오 부스트 앰프,
RGB 입출력 모니터와 프로젝터, 조명등, 브레멘 미술관 소장

Nam June Paik, **Three Camera Participation**, 1969 (2001),
dimensions variable, three videocameras, video distribution amplifier,
video boost amp, monitor and projector with RGB input and output,
theatre lights, Kunsthalle Bremen – Kunstverein in Bremen Collection

〈세 대의 카메라 참여〉는 흑백 카메라 세 대에 연결된 텔레비전에 다채로운 색깔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작품이다. 카메라는 각각 텔레비전 내부의 빨강, 초록, 파랑의 전자 빔을 통해 피사체를 비추고, 카메라와 텔레비전 사이에 신호를 맞춰주는 장비와 증폭기를 연결하여 세 가지 색이 텔레비전 화면에 합쳐져 나타난다. 이는 프로젝터와도 연결되어 벽면에 영사되며,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든다. 그림자 놀이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관객의 참여로 완성되어 스스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표현을 되짚어 보게 한다. 백남준은 비싼 컬러 카메라를 대체하기 위해 단순한 기술로 원하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실험적인 영상의 가능성을 발견해냈다.

Three Camera Participation is a work in which colorful shadows appear on a television connected to three black-and-white cameras. Each camera illuminates the subject with red, green, and blue electron beams inside the television, and the three colors merge on the screen through equipment and amplifiers that synchronize the signals between the cameras and the television. The setup is also connected to a projector, which casts the image onto the wall, creating equally beautiful shadows. Reminiscent of shadow play, the piece invites viewers to reflect on their own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of reality. Nam June Paik discovered the potential of experimental video by using simple technology to create the desired scene, thus replacing expensive color cameras.



비디오
Video

-WNET 방송국, 〈창조적 매체로서의 TV〉, 1975

-WNET Television Station,
TV as a Creative Medium, 1975

Nam June Paik, *Magnet TV*, 1965 (1969), TV 32×43×40cm,
magnet 4×14×4cm, 1 CRT TV set, 1 magnet

Nam June Paik, *Magnet TV*, 1963, 50×90×120cm, 1 CRT TV set,
1 magnet, MMCA Collection

백남준, *〈자석 TV〉*, 1965(1969), TV 32×43×40cm,
자석 4×14×4cm, CRT TV 모니터 1대, 자석 1개

백남준, *〈자석 TV〉*, 1963, 50×90×120cm, TV 수상기,
자석,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자석 TV〉(1965(1969), 백남준아트센터 소장)는 2025년 9월 14일까지 전시되며, 작품 보존을 위해 교육용 〈자석 TV〉로 대체하여 전시될 수 있습니다.

〈자석 TV〉(1963, 국립현대미술관 소장)는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전시됩니다.

Magnet TV (1965 (1969), collection of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is on display until September 14, 2025, and may be replaced with an educational version of *Magnet TV* for conservation purposes during the exhibition.

Magnet TV (1963, MMCA Collection) is on display from September 16, 2025, to February 22, 2026.

〈자석 TV〉는 관람객이 자석을 텔레비전에 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다. 텔레비전은 내부의 형광 물질과 전자 빔이 충돌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자기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자 빔이 강력한 자석의 방해를 받으면, 자석 쪽으로 빨강, 초록, 파랑 삼색의 일그러진 화면이 나타나며 추상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자석 TV〉는 텔레비전 외부의 자기장이 화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간단한 기술로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석은 이미지 구현을 위한 도구를 넘어서, 관람객에게 작품의 기계적 원리를 쉽게 전달하는 장치로 작용하여 즉각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Magnet TV is a work that allows the viewer to move a magnet over the television. A television is made in such a way that an electron beam collides with the fluorescent material of the screen to produce light. When the electron beam moving in a magnetic field is interrupted by a powerful magnet, a distorted screen of red, green, and blue colors appears towards the magnet, creating an abstract movement. *Magnet TV* considers the effect of external magnetic fields on the screen of a television set and creates a visual effect with simple technical elements. The magnet creates a sensual screen while at the same time acting as a device that allows the viewer to easily understand the mechanical principles of the work, resulting in immediate engagement.

비디오 Video

- 장 폴 파르지예, 〈남준, 한 번 더〉, 1990
- WNET 방송국, 〈백남준: 텔레비전을 위한 편집〉, 1975
- CBS 뉴스, 〈선데이 모닝〉, 1982
- Jean-Paul Fargier, *Play It Again, Nam*, 1990
- WNET Television Station, *Nam June Paik: Edited for Television*, 1975
- CBS News, *Sunday Morning*, 1982

백남준, <촛불 TV>, 1975(1999), 34×36×41cm, 초 1개,
철제 TV 케이스 1대

Nam June Paik, <Candle TV>, 1975 (1999), 34×36×41cm, 1 candle,
1 steel TV case

<촛불 TV>는 오래된 텔레비전의 내부를 비우고, 대신 그 안에 촛를 하나 밝혀 놓은 작품이다. 텔레비전의 광원을 촛불로 대체함으로써, 텔레비전의 전자적이고 비물질적인 속성을 역으로 드러낸다. 일반적인 전자기기는 복잡한 기술을 블랙박스 속에 감추어 사람들의 기술적 이해와 접근을 제한하지만, 백남준은 오히려 기술 구조를 외부로 노출하여 관객이 직관적으로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명징한 구조는 <촛불 TV>가 촛불의 상징성을 통해 기술과 대비되며 강렬한 시적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텔레비전의 전원을 켜는 대신 촛불이 타면 사람이 새것으로 교체하여 다시 불을 밝히도록 만들어, 끊임없이 발전하는 새로운 기술이 오래된 기술인 촛불에 의해 대체되는 아이러니와 기술의 본질이 인간 중심이어야 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Candle TV is an artwork in which the inside of an old television is hollowed out, and a single candle is lit inside. While typical electronic devices hide complex technology in a black box, making them neither comprehensive nor accessible, Nam June Paik instead exposes the technical structure, allowing the viewer to understand the work intuitively. *Candle TV* reverses the electronic and immaterial nature of the television by replacing its light source with a candle. With its clear structure, *Candle TV* evokes a strong poetic association in which the symbolism of candles contrasts with technology. Instead of powering up the television, when the candle burns out, a person must replace it with a new one to relight it. This shows the irony of ever-advancing new technology being replaced by an old technology, the candle, and reveals the human-centered nature of technology.



<촛불 TV>는 2025년 7월 27일까지 전시되며, 2025년 8월 7일부터 2025년 10월 19일까지 2층 전시실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Candle TV is on display until July 27, 2025, and will be available for viewing in Gallery 2 from August 7, 2025, to October 19, 2025.

비디오
Video

-일본 NHK 방송국, <일요미술관>, 1984
-WNET 방송국, <비디오 갤러리 III>, 1976
-NHK 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Sunday Museum*, 1984
-WNET Television Station, *Video Gallery III*, 1976

Nam June Paik, *Zen for TV*, 1963, 150×70×50cm, 1-channel video,
1 CRT TV set, MMCA Collection

백남준, 〈TV를 위한 선〉, 1963, 150×70×50cm, 비디오,
TV 모니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TV를 위한 선〉(1963,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은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전시됩니다.

Zen for TV (1963, MMCA Collection) is on display from September 16, 2025, to February 22, 2026.

〈TV를 위한 선〉은 기술적 오류를 예술적 영감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텔레비전 모니터를 단 하나의 빛줄기가 채우고 있는 작품이다. 1963년 백남준은 첫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텔레비전이 고장 나 가로선 하나만 화면에 나타나자 이를 옆으로 세워 세로선으로 보이도록 하여 전시했다. 기술적으로는 텔레비전의 내부 회로의 수직 출력단이 끊어져 주사선들이 한 줄로 보이는 것이지만, 백남준은 이를 미적 직관으로 포착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재탄생 시켰다. 관람객은 텔레비전이라는 공간 안에서 마치 시간이 응축된 듯한 강렬한 인상을 받으며, 전자적으로 창조된 새로운 시간의 흐름을 발견하게 된다.

Zen for TV is a work in which a single line of light glows on a television monitor. In 1963, while preparing for his first solo exhibition, Nam June Paik encountered a malfunction with a television that caused only a horizontal line to appear on the screen. He decided to display it sideways, creating the appearance of a vertical line. Technically, the television's vertical output circuit had been disconnected, causing the scan lines to appear as a single row. However, Paik artistically transformed this anomaly into a work of art, imbuing it with aesthetic meaning. In front of the light, which seems to condense time within the space of the television, viewers discover a new, electronically created sense of time.

백남준, <참여 TV>, 1963(1998), 가변크기, 회로 조작 CRT TV 모니터 1대, 신호 발생기 2대, 온도 조절기 1대, 앰프 2대, 마이크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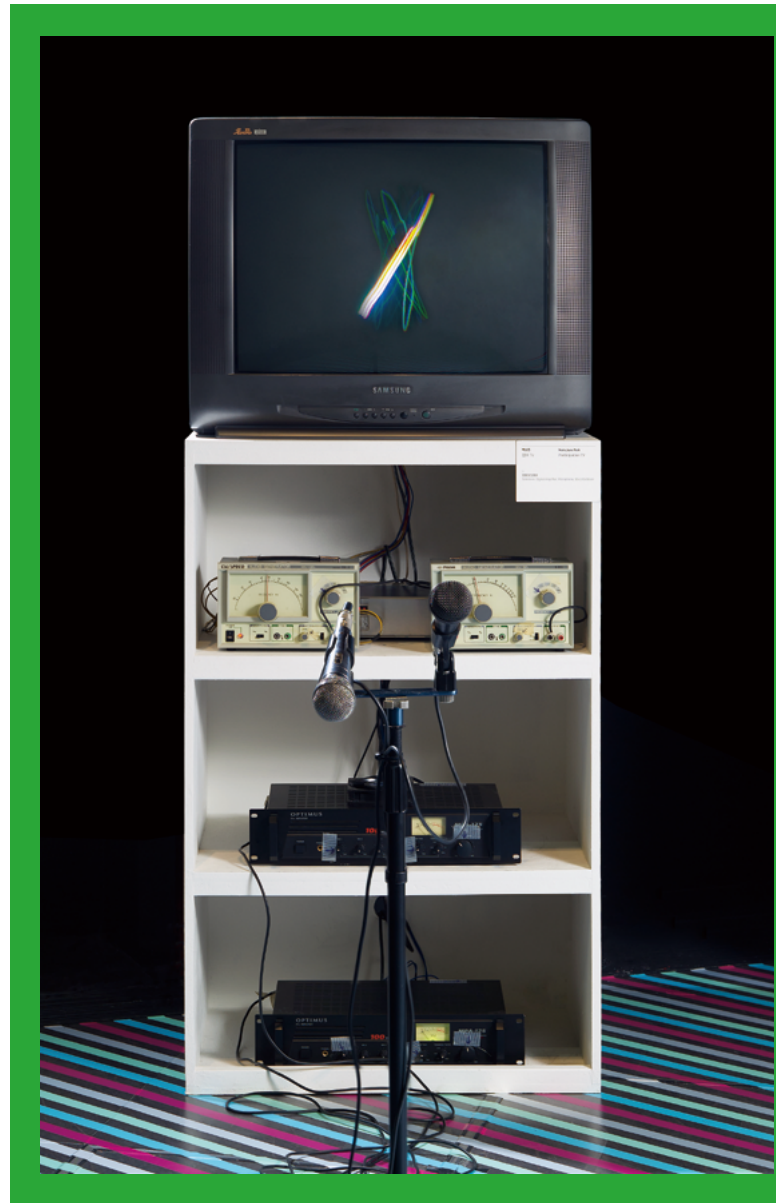
Nam June Paik, *Participation TV*, 1963 (1998), dimensions variable, 1 manipulated CRT TV set, 2 audio generators, 1 temperature controller, 2 amplifiers, 2 microphones

<참여 TV>는 모니터에 연결된 마이크에 관객이 소리를 내면 그 소리의 높낮이와 크기에 따라 불규칙한 패턴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모니터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백남준은 1963년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에서 13대의 실험 텔레비전을 선보였는데 그 중 하나가 <참여 TV>이다. 이후 만들어진 <참여 TV>는 앰프와 신호 발생기가 함께 구성되어, 사운드를 만들지 않아도 화려한 선으로 이루어진 무중력의 ‘댄싱 패턴’이 계속하여 움직인다. 리본 모양의 ‘댄싱 패턴’은 관람객의 소리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변화한다. 오디오 신호를 통해 내부를 조작하는 방식은 백남준의 비디오에 자주 등장하는 독창적인 조형 패턴 생성 과정의 근간이 된다.

Participation TV is a work that displays unpredictable visual patterns based on the pitch and volume of the sound made by viewers into a microphone connected to a monitor. In his first solo exhibition, *Exposition of Music - Electronic Television*, in 1963, Nam June Paik presented 13 experimental televisions, one of which was *Participation TV*. *Participation TV* was later enhanced with amplifiers and audio generators, creating a weightless “dancing pattern” of colorful lines that move continuously without producing sound. The ribbon-like “dancing pattern” changes into different shapes depending on the sound of the viewer. Manipulating the interior with audio signals is the generative method underlying the sculptural patterns that would later appear frequently in Paik's videos.

비디오 Video

- 일본 NHK 방송국, <일요미술관>, 1984
- 장 폴 파르지에, <남준, 한 번 더>, 1990
- NHK Japan Broadcasting Corporation, *Sunday Museum*, 1984
- Jean-Paul Fargier, *Play It Again, Nam*, 1990



Nam June Paik, In Collaboration with Charles Atlas,
Merce Cunningham, and Shigeko Kubota,
Merce by Merce by Paik, 1978, 28:45, color, sound

백남준, 찰스 아틀라스와 머스 커닝햄과 시게코 구보타와
협력, *〈머스 바이 머스 바이 백〉*, 1978, 28:45, 컬러, 유성



〈머스 바이 머스 바이 백〉은 1부 〈블루 스튜디오: 다섯 조각〉과 2부 〈머스와 마르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커닝햄이 직접 안무를 구성하고 이를 백남준이 촬영한 비디오 작품으로, 움직임에 대한 커닝햄의 실험과 시간에 관한 실험을 결합했다. 백남준은 미리 녹화한 커닝햄의 영상을 비디오 합성기로 편집하여, 다양한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여러 명의 커닝햄을 등장시킨다. 실제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오가는 커닝햄은 시공간을 초월해 자유롭게 움직이고 반복적인 무용 동작을 통해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낸다. 영상은 아기의 움직임과 도로 위를 달리는 차를 비추며 “이것은 춤입니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새로운 동작과 움직임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작품에서 백남준은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교차편집하고 되감기 하는 기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2부에서는 비디오를 통해 마르셀 뒤샹을 소환하고, 시간과 죽음의 문제를 탐구한다. 비디오에서 장면을 짧게 되돌리는 편집 방식은 결국 ‘시간의 춤’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되돌릴 수 있는 시간과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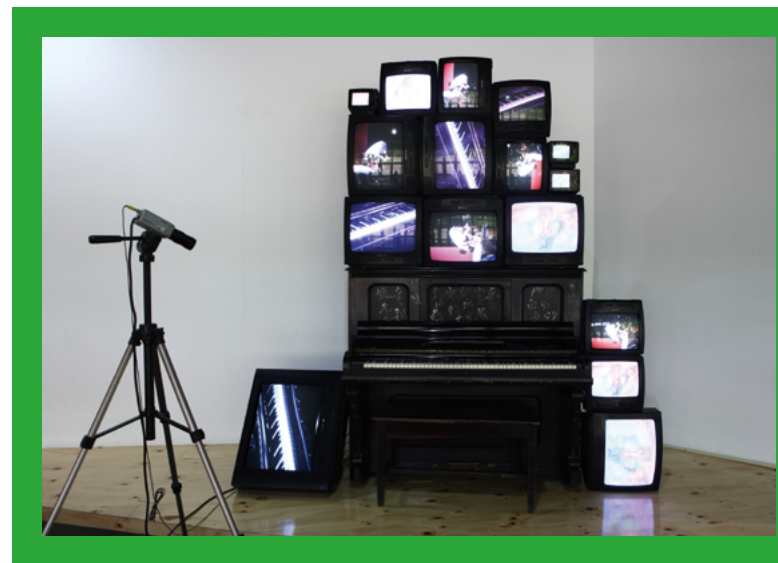
Merce by Merce by Paik consists of two parts: *Part One: Blue Studio: Five Segments* and *Part Two: Merce and Marcel*. In *Part One*, Merce Cunningham choreographed the dance, which was filmed by Nam June Paik, blending Cunningham's experiments with movement and Paik's exploration of time. Paik edited pre-recorded footage of Cunningham using a video synthesizer, layering multiple versions of the dancer against various backgrounds. Moving between real and virtual spaces, Cunningham transcends time and space, moving freely and creating beautiful scenes through repetitive dance movements. The video reflects the movement of a baby and cars on the road, posing the question, "Is this dance?" and suggesting new possibilities for motion and movement. Throughout the piece, Paik continuously challenges the concept of time using techniques like cross-cutting and rewinding, blending scenes from the past and present. *Part Two* brings Marcel Duchamp back through video to explore themes of time and death. The editing technique of briefly reversing scenes can ultimately be seen as a "dance of time," addressing both reversible time and irreversible time.

백남준, <TV 피아노>, 1998, 265×10×269cm, 비디오
카메라 1대, 텔레비전 16대, 피아노 1대, 3-채널 비디오,
애경산업 소장

Nam June Paik, *TV Piano*, 1998, 265×10×269cm, 1 videocamera,
16 CRTTV sets, 1 piano, 3-channel video, Courtesy of AK Industrial

백남준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와 작곡을 배우며 작곡가의 꿈을 키웠다. 백남준이 처음으로 실험 텔레비전을 개인전에서 선보인 전시의 제목은 《음악의 전시 — 전자 텔레비전》이었으며, 작품은 단지 '시간-예술'이라고 했다. 비디오 아트 역시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로, 시간의 흐름에 의해 지배된다. <TV 피아노>는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백남준의 음악과 비디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피아노 위에는 12대의 텔레비전이 불규칙하게 쌓여 있다. 몇 대의 텔레비전은 폐쇄회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피아노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다른 텔레비전은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비디오 속 백남준은 카메라를 손에 들고 마치 건반을 누르듯 연주를 이어간다. 백남준의 비디오 피아노 연주는 피아노의 비선형적인 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다.

Nam June Paik had learned how to play piano and compose from a young age, nurturing his dream of becoming a composer. When he first showcased experimental television in a solo exhibition, he titled the show *Exposition of Music* and described the work simply as "time-art." Video art, too, is based on time and governed by its flow. In this regard, *TV Piano* is a work that best showcases Paik's exploration of music and video, centered around time. Twelve televisions are stacked irregularly on top of a piano. Some televisions display real-time footage from the piano, filmed through closed-circuit cameras, while others show Paik's performance. In the video, Paik holds the camera in his hands and plays it as if pressing the piano keys. Paik's video piano performance creates a beautiful, non-linear sense of time.





〈앨란과 앨런의 불평〉은 두 예술가와 아버지의 관계를 담은 비디오를 통해 과거를 기록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편집할 수 있는 비디오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두 예술가들은 가부장적인 유대인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질서와 예술을 창조하고자 한다. 백남준은 비디오 합성을 통해 두 예술가 앨란과 앨런이 불만을 갖고 있는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비트 세대의 상징적 시인인 앨런 긴스버그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향한 아버지가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와 같은 화면에서 합성된 영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앨란 캐프로는 예수처럼 물 위를 걸어보려고 시도하지만 당연히 실패하는데, 백남준은 영상 합성으로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고속 재생된 비디오 속 장면들은 시종일관 장난스럽고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하지만,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다방향으로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는 백남준의 비디오 실험은 진지하게 나아간다.

Allan 'n' Allen's Complaint is a video that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artists and their father,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video to capture the past and reframe it into a new narrative. These two artists, grappling with conflict with their patriarchal Jewish father, seek to create a new order and art. Through video synthesis, Nam June Paik allows Allan and Allen to overcome the time and space limitations that have long hindered them. Allen Ginsberg, the iconic poet of the Beat Generation, meets and converses with his father, who led a life completely different from his own, in a video synthesized on the same screen three years after his father's death. Performance artist Allan Kaprow attempts, unsuccessfully, to walk on water like Jesus, but Paik uses video compositing to make this impossible feat possible. While the scenes in the high-speed video maintain a playful and lively atmosphere, Paik's video experiments take a serious turn, offering a multidimensional experience that transcends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피터 무어

- 《혼합매체 오페라》, 타운홀, 뉴욕, 1968, 40.4×59.8cm
- 〈살아 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 《창조적 매체로서의 TV》, 하워드 와이즈 갤러리, 뉴욕, 1969, 49.3×49.5cm
- 〈플럭서스 소나타 4번〉,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뉴욕, 1975, 59.5×40cm
- 〈걸음을 위한 선〉, 제12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 플로이드 베넷 필드, 뉴욕, 1975, 59.5×40cm
- 〈생상스 테마 변주곡〉, 제3회 뉴욕 아방가르드 페스티벌, 저드슨 홀, 뉴욕, 1965, 59.4×43.2cm
- 〈필름을 위한 선〉, 뉴 시네마 페스티벌 I, 필름메이커스 시네마테크, 뉴욕, 1965, 40×59.5cm
- 〈자석 TV〉, 카날가 스튜디오, 뉴욕, 1965, 40×59.5cm
- 〈무제(텔레비전 실험을 하는 백남준)〉, 1965, 15.2×22.5cm
-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하나〉를 선보이는 조지 머추너스, 플럭스홀, 뉴욕, 1964, 22.2×15.2cm (4점)
- 〈존 케이지의 현악 연주자를 위한 26'1.1499"를 공연하는 살럿 무어먼과 백남준(인간 첼로)〉, 채널 13 스튜디오, 1971, 22.5×15.2cm
- 〈TV 첼로를 공연하는 살럿 무어먼과 백남준〉, 1971, 30.5×20.3cm
바리타지에 흑백 사진

Peter Moore

- Mixed Media Opera*, Town Hall, New York, 1968, 40.4×59.8cm
- TV Bra for Living Sculpture, TV as a Creative Medium*, Howard Wise Gallery, New York, 1969, 49.3×49.5cm
- Fluxus Sonata No. 4*, Anthology Film Archives, New York, 1975, 40×59.5cm
- Zen for Walking*, 12th Annual Avant-Garde Festival of New York, Floyd Bennett Field, New York, 1975, 59.5×40cm
- Variations on a Theme by Saint-Saëns*, 3rd Annual Avant Garde Festival of New York, Judson Hall, New York, 1965, 59.4×43.2cm
- Zen for Film*, New Cinema Festival I, Film-Makers' Cinematheque, New York, 1965, 40×59.5cm
- Magnet TV*, Canal Street studio, New York, 1965, 40×59.5cm
- Untitled (Nam June Paik with his "Demagnetizer" or "Life Ring")*, 1965, 15.2×22.5cm
- George Maciunas performing Nam June Paik's "One for Violin Solo"*, Fluxhall, 359 Canal Street, NY, 1964, 22.2×15.2cm (4 pieces)
- Charlotte Moorman and Nam June Paik performing John Cage's 26'1.1499" for A String Player ("Human Cello")*, Channel 13 TV Studio, 1971, 22.5×15.2cm
- Charlotte Moorman and Nam June Paik performing his "TV Cello"*, 1971, 30.5×20.3cm
black and white photograph printed on Baryta paper

피터 무어는 1960년대 초반 뉴욕의 예술 공동체의 일원으로 플럭서스, 저드슨 댄스 시어터 그리고 수많은 해프닝을 기록하며 당대 실험적 공연 예술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일순간 사라져버리는 퍼포먼스의 본질을 꿰뚫어 본 무어는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30여 년간 사진 작업을 이어가며 방대한 사진 아카이브를 남겼다. 무어의 사진 속 백남준은 흐르는 시간 속에 존재하면서도 마치 조각 작품처럼 인상깊은 이미지로 각인된다. 〈필름을 위한 선〉 앞에서 스크린을 응시하는 백남준, 자석을 쥐고 텔레비전 영상을 만드는 백남준, 물이 가득 찬 석유통에 빠지기 직전의 살럿 무어먼, 바이올린을 끌며 한없이 걸어가는 백남준. 무어의 사진은 움직임이 시작되는 순간이 곧 예술이 완성되는 정점임을 보여준다.

Peter Moore was a member of the New York art community from the early 1960s, capturing the energy of experimental performance art by photographing Fluxus, the Judson Dance Theater, and many other happenings. Moore understood the fleeting nature of performance, saying, “If I don't record these, they'll be lost.” He continued his photographic documentation for three decades, leaving behind a vast archive. Moore's photographs of Nam June Paik reveal intense, sculptural moments within the continuous time of performance: Paik in front of a screen in *Zen for Film*, Paik clutching a magnet to create a television image, Charlotte Moorman on the verge of drowning in a barrel filled with water, and Paik walking with a violin in tow. Moore's photographs show that the instant a movement occurs is when art is brought to life.



백남준, **〈TV 물고기〉**, 1975(1997), 가변크기, CRT TV
모니터 24대, 어항 24개, 살아 있는 물고기, 비디오 분배기,
3-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LD

Nam June Paik, **TV Fish**, 1975 (1997), dimensions variable,
24 CRT TV sets, 24 fish tanks, live fishes, video distributor,
3-channel video, color, silent, LD

〈TV 물고기〉는 일렬로 늘어선 24개의 어항 뒤에 24대의 텔레비전이 놓인 작품이다. 어항 안에는 살아있는 물고기가 유명하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머스 커닝햄의 모습과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등장한다. 어항과 텔레비전 화면이 겹쳐서 실제 물고기와 비디오 속 세상이 혼재되어 보여진다. 머스 커닝햄은 물고기와 함께 춤을 추고 비행기는 바다 속을 날아다니는 형국이 된다. 어항 속의 물고기와 영상 속 존재들은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룬다.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물고기와 가상의 시간이 흘러가는 영상의 조합은, 현실의 시간 구조를 반영하고 새로운 공간감을 만들어낸다.

TV Fish is a work in which 24 televisions are placed behind 24 fish tanks lined up in a row. Live fish swim in the tanks, while the television screens display clips of Merce Cunningham moving freely, fish swimming in the ocean, and airplanes flying in the sky. The fish tanks and television screens overlap, blending the real fish with the world depicted in the video. Cunningham dances with the fish, and the airplanes seem to fly through the sea. The fish in the tanks and those in the video exist in tension but also in harmony. This juxtaposition of the fish moving in physical time and the virtual passage of time in the video reflects the temporal structure of reality and creates a new sense of space.

비디오 Video

- CBS 뉴스, 〈선데이 모닝〉, 1982
- 독일 ARD 텔레비전과 브레멘 미술관의 회고전에 맞추어 인터뷰하는 백남준, 1999
- CBS News, *Sunday Morning*, 1982
- Nam June Paik's Interview on the Occasion of His Retrospective with ARD Television and the Kunsthalle Bremen, Germany, 1999



백남준아트센터
전지적 백남준 시점
2025. 4. 10. - 2026. 2. 22.

Nam June Paik Art Center
Play It Again, Paik
April 10, 2025 - February 22, 2026

기획
이수영
이상아

Curator
Lee Soo Young
Lee Sangah

그래픽디자인
유나킴씨

Graphic Design
yunakimc

공간디자인
무진동사

Space Design
mujindongsa

번역 및 감수
아떼어바이

Translation and Revision
ARThereby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

Opening hours
10am - 6pm
Last admission is one hour before closing

휴관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 제외)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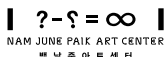
Closed
Mondays (excluding holidays)
January 1st, New Year's day, Thanksgiving day

무료입장

Admission free



백남준아트센터 1706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로 10
Nam June Paik Art Center 10 Paiknamjun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068 Korea
njp.ggcf.kr 031-201-8500



f namjunepaikartcenter

ig njpartcenter

yt namjunepaikartcenter

